

김기현 45.3% vs 안철수 30.4%... 혼돈의 與 대표 경선

리얼미터 국힘 지지층 여론조사 대통령실·친윤계 비판·견제 영향 한길리서치는 安 오차범위 앞서 천하람 두자릿수 지지율로 3위

국민의힘 지지층의 당 대표 지지도에서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반면, 김 후보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지도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러블 의뢰로 지난 6-7일 국민의힘 지지층 402명을 대상으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로 누가 선출되는 것이 좋은지'를 묻은 결과, 김 후보라는 응답이 45.3%, 안 후보라는 응답은 30.4%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차이는 오차범위(±4.9%p) 밖인 14.9%포인트(p)다.

지난달 31일-이달 1일 실시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김 후보 지지도는 9.3%p 올랐고, 안 후보 지지도는 12.9%p 내렸다.

리얼미터 측은 "대통령실과 '친윤'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윤안연대' (윤석열 대통령과 안 후보의 연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 지지층 조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이 안 후보를 겨냥해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장제원-이철규 등 친윤 핵심 의원들은 물론 당 지도부까지 나서 삽자포화를 퍼부으며 윤 대통령과 안 후보 간 갈등 양상이 전개되자, 김 후보 지지세 결집 효과가 있었다는 해석이다.

안 후보의 경우 '이준석계'로 나선 천하람 후보가

출마하며 강성 '비윤' (비윤석열)층이 이탈한 점 등이 지지도 하락세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리얼미터 측은 전했다. 두 후보에 이어 천하람 후보 9.4%, 황교안 후보 7.0%, 조경태 후보 2.4%, 윤상현 후보 2.0% 순으로 기록됐다.

김 후보와 안 후보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김 후보 지지도가 과반인 52.6%로, 안 후보(39.3%)를 오차범위 밖에서 추월했다. 김 후보는 직전 조사보다 8.2%p 상승했고, 안 후보는 9.6%p 하락했다.

한편, 다자대결 구도 속 대표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47.1%, (직전 조사 대비 2.7% ↑)로, 37.5%(3.5% ↓)를 기록한 안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격차를 벌렸다.

이어 천 후보 4.2%, 황 후보 3.6%, 조 후보 1.8%, 윤 후보 1.8%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 90%·유선 10% 자동응답(ARS) RDD 방식으로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9%p다.

또 한길리서치가 쿠팡뉴스 의뢰로 지난 4-6일 국민의힘 지지층 527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 지지도를 묻은 결과, 안 후보가 35.5%, 김 후보가 31.2%로 오차범위(±4.3%p) 내 격차를 보였다.

천 후보는 10.9%로 두 자릿수 지지도를 기록했다. 황 후보는 7.8%, 윤 후보는 3.2%, 조 후보는 1.5%였다. 김 후보와 안 후보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안 후보가 46.7%로 37.5%인 김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번 조사는 유선 전화면접(10.0%), 무선 ARS(90.%) 병행 방식으로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3%p다.

두 여론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김기현·안철수 측 '천하람 변수' 아전인수 해석

10일 발표 컷오프 4명 포함 주목

金 "막판 표 결집" 安 "결선투표 유리"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본격적인 진출자를 가리는 여론조사가 진행되면서 '양강'인 김기현-안철수 후보 외에 3·4위 후보가 누가 될지에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무작위 추출한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본격적인 오를 후보 4인을 선정하는 이른바 '컷오프' (예비경선)를 한다. 결과는 오는 10일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예비경선 대상에 오른 후보는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천하람·황교안(이상 가나다순) 등 6인이다. 당내에선 각종 여론 조사상 앞치락뒤치락하며 선두를 다투고 있는 김기현·안철수 후보의 본격적인 진출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이보다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3-4위권을 보이는 천하람·황교안 후보가 실제로 '파이널 포'에 들어갈 지 더 주목된다.

특히 전통적 지지층을 가진 황 후보보다는 '반

윤' (반윤석열)인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 후보의 지지율 흐름에 더 관심이 간다. 그는 막판에 합류했지만, 이 전 대표 지지에 힘입어 2030세대 청년 당원들을 중심으로 세를 확장하는 모양새다.

선두그룹인 김·안 후보 측은 모두 천 후보의 '선전'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김 후보 측에선 천 후보 득표율이 높아질수록 다자 대결에서 김 후보를 향한 표 결집도 강해질 것으로 내보내는 분위기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천 후보가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와 확실한 대척점에서 있는 만큼, 천 후보 상승세에 위협을 느낀 전통 지지층이 김 후보로 몰릴 것이라 분석이다.

그러나 안 후보 측에서는 천 후보가 활약할수록 안 후보에게 '호재'라는 정반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전대에서는 특정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가 열리게 되는데, 결선투표에 올라간 안 후보가 천 후보 지지층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천 후보가 주장하는 '중도보수·청년정치'가 김 후보보다는 안 후보 쪽에 더 가깝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장관 등 주요 인사 1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주목... 김건희 특검 분수령

대통령실이 오는 10일 오전 선고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1심 결과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주요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더붙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제기해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김 여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의혹 제기가 사그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사건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

터스 회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민주당 주장도 더는 힘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권 전 회장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검찰 수사 허점을 드러내고 김 여사 의혹을 해소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시기별로 구분되는 여러 건의 개별적인 범죄로 판단할 경우 설사 김 여사가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 여사의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거래 내역을 주로 수사해온 만큼 포괄일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시효도 2021년 만료된 것이 된다.

이와 별도로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자신이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김 여사 대신 주식을 거래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대통령실 역시 김 여사의 연루 의혹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김 여사를 엮기 위해 무리하게 사건을 만들었다"며 "그 정도로 수사하고도 혐의를 밝히지 못했으면 사건을 종결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 1심서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0만원

'뇌물공여' 김만배도 무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씨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도 함께 기소된 남씨에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겐 징역 15년과 벌금 50여억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겐 징역 5년, 남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태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중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병태씨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도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 OPEN

2023년 2월 1일,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빌딩 7층 | ☎ 062-521-0041

꿈을 보증하다 희망을 더하다

SGI서울보증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 투어나우 : 062-575-8019